

지적 인성
1. 문유석, 『개인주의자 선언』
2. 러네이 엥겔른,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3. 다자이 오사무, 『인간 실격』
4. 브레네 브라운, 『수치심 권하는 사회』
5. 김태형,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6.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7. 이선옥, 『우먼스플레인』
8. 권석만, 『인생의 2막 대학생활』
9. 윤이나, 『미쓰윤의 알바일지』
10. 천주희,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도덕적 인성
1. 문지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나에게』
2. 기시미 이치로, 『미움받을 용기』
3. 차병직, 『한 권의 책으로 시작하는 스무 살』
4.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5. 배르벨 바르데츠키,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6. 김원영,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7. 캐서린 그랜트, 『동물권, 인간의 이기심은 어디까지인가?』
8. 최진석, 『인간이 그리는 무늬』
9. 박현희 외, 『나는 무슨 일 하며 살아야 할까?』
10. 피터 홀린스,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



시민사회 인성
1. 김승섭, 『아픔이 길이 되려면』
2. 한승태, 『인간의 조건』
3.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4. 다나카 유, 『자원봉사도 고민이 필요해』
5. 김희경, 『이상한 정상가족』
6. 김승섭, 『우리 몸이 세계라면』
7. 손소연, 『우리가 몰랐던 까칠한 다문화 이야기』
8. 위근우,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9. 하승우,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
10. 홍성일, 『세상은 어떻게 뉴스가 될까』